"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드려요"

서울 도봉동 서원암, 급식 및 어린이 공부방 문 열어

온 국민이 미국 LA에서 열리고 있는 WBC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야구경기에 열광하는 시간. 3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세 시간 동안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원암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통해 천천히 모여든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새로 단장된 방으로 모셔졌다. 어린이용 서적에서 한글 대장경까지 불서가 빼곡한 방 가운데는 열 두 개의 식탁이 펼쳐져 있고 식탁마다 어느새 어르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몸이 불편 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저희가 식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는 주위의 분들까지 모시고 함께 오세요."

"이렇게 잘 먹고 그냥 갈 수 없어. 설거지라도 도와야겠는데…"

이렇게 시끌벅적 한 가운데 밥과 국솥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오르고 푸짐한 식사와 싱싱한 과일 접시가 식탁으로 배달됐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과 몸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매년 인근 무의탁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불우한 환경의 이웃들에게 김치를 보시 해 온 서원암이 무료급식소를 여는 첫날 풍경이다. 서원암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무료급식을 하고 다른 시간에는 급식방을 어린이 공부방 및 도서실로 개방할 계획이다.


20년간 김치보시를 해 온 서원암이 무료급식을 시작해 반야지 법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배식을 하고 있다.

"첫날이라 소문이 덜 난 탓인지 100여 분의 지역 어르신들이 식사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두 배 이상 늘어 날 겁니다. 매주 1000여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암 주지 반야지 법사는 20여 년 전부터 이웃돕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실천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수십명의 어르신들을 공양하면서 시작한 김치 보시가 작년 겨울에는 1만6천여 포기로 늘어났다. 도봉구 일대는 물론 노원구와 의정부와 포천 일대의 이웃들에게까지 자비의 김치를 전해 왔다.

서원암은 김치 보시를 위해 포천에 마련한 농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재료를 충당하고 있다. 농사철이 되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되는 불자들이 농장으로 달려가 무 배추 등을 가꾸며 신심도 다지고 공덕 쌓는 즐거움도 키워 왔던 것이다.

"그동안 김치 재료를 얻는 일을 주로 했지만 올 봄부터는 무료급식에 쓰일 야채들도 모두 농장에서 무공해로 가꿀 계획입니다. 농장도 더 확장했고 자원봉사자들도 더 신나게 일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눌수록 자신과 세상의 행복도 커진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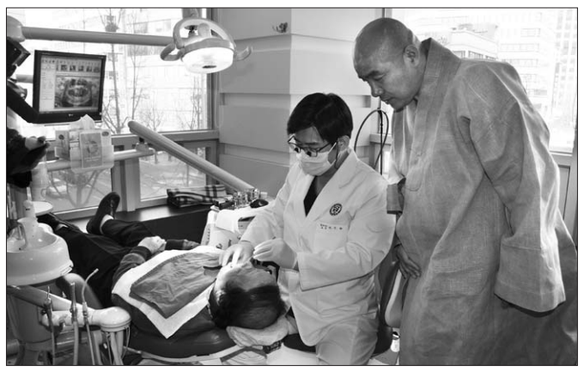
서원암의 김치 보시와 무료급식 등은 반야지 법사의 원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단합이 만들어 내는 나눔의 불사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자의료인 잇따른 자비의 손길

불자의료인들의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와 협력병원 조인식을 맺은 서울 궁플란트 치과(원장 최우환)가 지난 2월에 이어 3월 20일 무의탁 독거노인 김두원 어르신(76)에게 무료틀니시술을 진행했다.


서울 궁플란트 치과 최우환 원장이 김두원 어르신에게 무료틀니시술을 하고있다.

최우환 원장은 "부처님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신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명과 체온을 함께 나누는 한 몸"이라며 "나눔은 당연한 일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더 나누고 보살피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궁플란트치과는 매달 종로구 소년소녀가장 14명을 무료진료하고 4월 26일, 5월 2일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 행사에 맞춰 병원 앞에 부스를 설치해 무료진료도 실시한다. (02)722-2870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단장 구자선)는 3월 21일 서울 새빛지역아동센터(대표 김변호)에서 외부모, 조부모와 살고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29명에게 치과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반갑다연우야는 앞으로 매달 4~5차례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4월 11일은 서울 용산 혜심원, 12일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25일 서울 경생원 등에서 현장 의료서비스가 진행된다. (02)733-7277

이상언 기자

"용서와 자비로 더 잘 살아보자"

불교여성개발원, 매달 웰다잉문화운동 특강

"최고의 용기는 '용서', 최고의 카리스마는 '자비'다."

중앙신도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 웰다잉운동본부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강선희(47 · 여성불자108인)씨 초청특강을 실시했다. 저자 강선희 씨는 죽음의 순간부터 겪게 되는 심신의 변화, 사후 일어나는 현상 등에 대해서 저자의 다양한 호스피스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잘 죽는 방법을 강의했다.

강선희 씨는 "죽을 때 모습은 그 동안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자비와 용서, 수행의 삶을 산 사람은 죽을 때에도 평온하고 사체에서도 좋은 기운이 흐르지만 의심, 시기, 질투로 살아온 사람은 죽을 때에도 고통스럽고 사체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사지가 비틀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서 참회하며 바르게 살고 생사해탈이라는 목표점을 갖고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면 잘 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월정사 단기출가 숲길 걷기

1400여 년 전 자장율사를 비롯한 고승대덕들이 걷던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걷는 행사가 마련됐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23일 제6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옛길 따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선 5월 1~31일까지 월정사 경내에서 오대산 사진전이, 5월 1~23일까지는 디지털 사진 촬영대회도 개최된다. 5월 6일에는 '숲과 길의 만남'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마련됐다.

한편 월정사는 4월 6일부터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단기출가학교를 실시한다. (033)339-6800

조동섭 기자

"도시인이 원하는 진정한 정신휴양소 될 터"

백운암 서울 포교당 상도선원 낙성법회 봉행

과거와 현대를 어우르는 대중포교와 수행정진, 21세기형 법당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 선원이 있다. 그 현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백운암 서울 포교당 상도선원(선원장 미산). 당대 고승들이 주석했던 도심포교의 현장인 상도선원에 뜻 깊은 법회가 열렸다.

월산 · 운허 · 탄성 · 석주 스님을 비롯 조계종 5대 종정 서옹 스님(1912~2003)이 40여 년 주석했던 백운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상도선원이 3월 22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은 봉헌사에서 "서옹 대종사의 뜻과 정신을 이어 이 도량이 참선정진하는 도량, 부처님 되는 도량이 됨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참선 정진해 참사람(無位眞人)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했다.

상도선원은 미산 스님이 '참사람 운동'을 펼쳤던 서옹 스님의 유지를 이어 대중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대승불교, 남방불교학은 물론 간화선과 위파사나 수행을 두루 거친 미산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불교에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어 새로운 수행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산 스님은 "간화선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참선수행포교에 앞장서 백운암의 역사와 전통을 이을 것"이라며 "주부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마음수행학교'와 개별 신도에 대한 상담을 토대로 간화선, 위파사나, 주력(呪力), 염불 등 각자에게 맞게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에는 간다르바 합창단, 의식집전회, 참선수행모임 등 활발한 신행모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세련된 인테리어에 고급 찻집이나 갤러리 같은 선원은 도시인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신 휴양소 역할을 할 전망이다. (02)815-3391


3월 22일 백운암 서울 포교동 상도선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왼쪽부터 허운 스님, 정몽준 의원, 수산 스님, 미산 스님.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깔야나미따 명상선원 '경전공부방'=깔야나미따 명상선원은 4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50분 '빨리 원전으로 공부하는 사띠파타나 숫따 경전공부방'을 운영한다. 수업은 아눌라 스님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수업료는 3개월에 10만원이다. (010)7303-5159

●남양주 봉인사 '상상 템플스테이'=남양주 봉인사는 △4월 11~12일 '상상 템플스테이' △17~26일 '사마타위빠싸나 명상' △24~26일 '행복수업'을 실시한다. (031)574-5585

●꿈바위불교교육원 '지장경 독송법과 기도법' 지도=꿈바위불교교육원이 지장경 기도의 길을 안내한다. 4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안한 시간에 지장경 독송법과 기도법을 지도한다. 공세화 원장이 직접 지도 한다. (010)6789-5008

●처난 호두마을 명상센터 '주말수행 프로그램'=천안 호두마을 명상센터는 4월 매주 금~일요일 주말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지 능혜 스님이 지도하며 동참금은 7만 5000원이다. 선착순 55명 접수. (041)567-2841

제11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11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①회당 대종사의 불교 인식 ②회당 대종사의 재가 출가관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 공모 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 교 일 반	3편			
밀 교 일 반	3편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소정 양식: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모일정 : 접수 마감 – 2009년 5월 15일(금요일)
당선작 발표 – 2009년 6월 19일(목요일)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2009년 11월 13일(금요일) 예정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 (500만원), 선정 7편 (편당 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suhyun@jingak.or.kr / yongdae49@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 한 불 교 진 각 종 교 육 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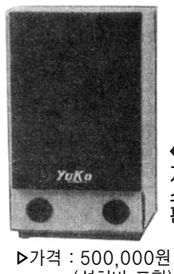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